
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서

2024. 06.

[청춘열차 999]

해외전문체육훈련 결과보고

2024년 해외전문체육훈련(2024.05.27.~05.30. 일본 홋카이도)의 주요활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 주요 성과 》

- 일본 홋카이도의 자연 환경에 따른 생활방식 탐방
- 역사 유적지와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연구

◎ 일본 홋카이도의 경제와 문화

- 일본 최북단에 있는 행정구역이자, 일본 열도에서 혼슈 다음으로 2번째로 큰 섬임. 주도는 삿포로이고 대한민국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큰 면적에 인구는 약 520여만명(2020년 추계)으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음.
- 옛 명칭은 '에조지'로 오랫동안 아이누족의 터전이었으나, 메이지유신 이후 개발되기 시작해 1869년부터 일본에 정식 귀속되어 홋카이도로 명명되었음.
- 사방이 동해, 오후츠크해, 태평양과 접해 있어 해산물이 매우 풍부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음.
- 지형은 대규모의 산지, 화산, 평야가 펼쳐져 있고, 낙농업이 발달했고 기계 농업이 대부분임. 세계 최대 다설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눈이 내려 눈과 얼음을 이용한 겨울 축제가 유명.
- 일본 전 국토를 통틀어 홋카이도 내의 식량 자급률은 약 200% 정도로 유일하게 식량 자급이 가능한 지역임.

일본 홋카이도 해외전문체육훈련 결과보고

I 해외전문체육훈련 주요내용 및 활동사진

【1일차】

- 출국: 한국 인천공항 ⇨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 노보리베츠마을 지옥계곡
 - 약 1만년 전 가사야마산의 폭발로 형성된 폭열 화구의 흔적으로 매 분당 3,000리터의 온천수를 용출하는 노보리베츠 온천의 원천임.
 - 면적 11ha, 길이 500m에 달하는 수증기와 유황냄새로 가득하여 지옥계곡이라 불림.



【2일차】

○ 지다이무라 시대촌

- 일본 역사 중 「에도시대」에 초점을 맞춘 역사 테마파크로 그 당시의 전통적인 건물과 닌자, 사무라이, 오이란 등 에도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체험도 해 볼 수 있는 민속촌과 같은 곳임.

○ 쇼와신잔

- 우스잔의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지반이 천천히 융기하면서 생겨난 기생 화산으로 해발 400m 정도 되며, 현재도 산 정상 주변에 수증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음.

○ 도야호수

- 우스잔의 화산 폭발로 생긴 원형의 칼데라 호수로 둘레 43km, 직경 8~11km이며 호수 안의 섬에는 야생사슴이 많이 살고있음.



【3일차】

○ 후키다시공원

- 일본 100대 명수로 알려진 공원. 요테이산 지하수가 지표로 솟아난 것으로 하루 약 8만 톤, 약 30만 명분의 생활용수와 비슷.

○ 오타루 운하

- 선박들의 화물 하선 작업을 위해 건설된 길이 1.3km, 폭 40m 홋카이도의 거점 무역항이었음. 현재는 창고를 개조해 유리공예관, 골동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삿포로 오도리공원 및 삿포로 맥주 박물관

- 오도리공원은 삿포로 중심부에 있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이벤트 개최 장소이자 안락한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임.
- 홋카이도 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유일의 삿포로 맥주 박물관은 1890년에 지어진 레트로풍의 붉은 벽돌 건물이 인상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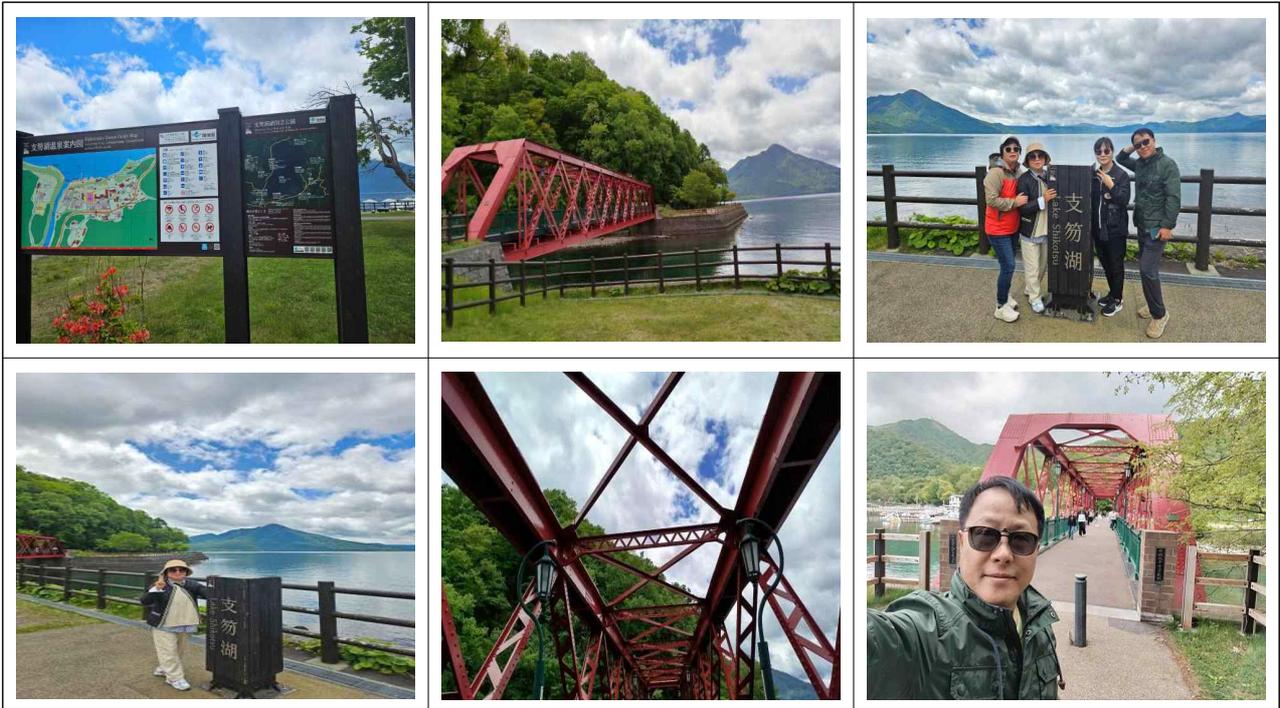


【4일차】

○ 시코츠 호수

- 시코스토야 국립공원에 있는 호수로서 레트로풍의 다리가 인상적이고 물이 매우 맑아 약 5~8m의 투명도를 자랑한다고 함. 일본에서도 2번째로 깊은 호수로 규모가 매우 큼.

○ 입국: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 한국 인천공항



II

참여자 의견

최민숙	<p>우선 해외견문체득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노보리베츠 온천마을의 노천탕 이용 시, 매일 새벽 시간 청소 후 남·여탕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보았는데, 이는 이용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 번 방문을 유도하는 듯하여 치밀한 관광상품 운영 방법에 혀를 내둘렀다.</p> <p>오도리 공원으로 향하는 차는 경적 한번 울리지 않았고, 퇴근 시간이었음에도 신호위반, 꼬리물기 없이 물 흐르듯 운행하는 걸 보며 깜짝 놀랐다. 날마다 운전하는 나에게는 참 놀라운 광경이었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서두르지 않고 양보하는 운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지다이무라 시대촌에서 사무라이, 닌자 등 '에도 시대' 복장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며, 전통 방식을 보존·계승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p>
김행순	<p>회사 동료와 함께 해외로 견문(출장)을 가게 되었고, 기대와 우려 속에 무사히 잘 다녀왔음에 감사함을 느꼈다.</p> <p>이번 견문으로 배운 점이 참 많았는데, 유독 눈에 띈 점은 경차가 많았다는 것이다. 도로가 좁아 경차가 많은가 싶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일본에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차고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차량 검사 비용 또한 CC별로 매우 비싸서 어쩔 수 없이 경차를 많이 구입한다고 한다. 이런 점을 알고 나니 불법 주차가 없던 일본의 깨끗한 거리가 다시금 눈에 확! 들어왔다.</p> <p>또한 골목, 대로변, 경작지, 유원지 대부분에서 깨끗함을 보았는데 이는 비단 가로 환경미화, 도로 정비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인들의 생활 의식이 몸에 깊게 배어있는 것 같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더 나은 교통 안전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위의 사례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p>

<p>정숙희</p>	<p>회사 동료와의 첫 해외 견문에 부푼 기대와 걱정되는 마음까지 생겨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미리 공부하고 가게 되었는데, 사전 지식이 훗 카이도 방문지 곳곳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기분이 좋았다. 담배꽂초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거리에 감명받았는데, 요즘은 이에 더하여 길거리 흡연자들이 개인용 재떨이까지 사용한다는 말에 매우 놀라웠다. 부천시에서도 지속적인 공익광고를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 의식을 심어주면 좋겠다.</p> <p>오타루 시는 과거 번성했던 오타루 무역항의 쇠퇴와 빈 건물, 운하 주변을 현대화로 재개발하지 않았고, 창고를 음식점, 오르골당, 공예품 매장 등으로 개조하였고, 산책로도 정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야경명소로 만들었다. 기존 자원을 본래의 목적을 잃었다고 무조건 없애지 않고 관광자원상품으로 발전시킨 행정이 매우 창의적이라 느꼈다.</p>
<p>이상호</p>	<p>생동감 있는 영화세트장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 샷포로 시내를 운행하는 1량짜리 노면전차를 보며, 그 효용가치 못지않게 근대문화유산으로써의 보존관리 및 관광상품으로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p> <p>과거 십수 년 전쯤 잘 사용하다 없어서 버린 부천시 상동의 드라마·영화세트장이 새삼 그리웠다.</p> <p>지진·화산이 많은 나라 특성상, 중고층 집합건물 테라스엔 전면 유리창 시공이 불허되어 우리나라처럼 온돌 난방 문화가 없는 일본 홋카이도의 겨울은 매우 춥다고 한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건물 외부에 계단 대피로가 필수인 점도 눈여겨 볼만했다.</p> <p>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산속 언덕 비탈길, 곡선길에는 도로열선이 깔려 있고, 양방향 맨 바깥 차선에는 차선 이탈 위험 표지판이 공중에 곳곳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세밀한 교통정책이 좋아 보였다.</p> <p>마지막으로 나의 첫 해외연수를 일본에서 같이 보낸 우리 '청춘열차 999' 동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p>